

日本책임회피에 制動

113 4월

政府「위안부보고서」의 의미

31일 발표된 정부의「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고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 이후 최초로 정부에 의해 신민지시대의 양을 했던 역사가 부분적이거나 잠정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관여 사실을 전면부인하다가 여러 차례 말리자 부분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온 日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단 지 추론과 감정적인 증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문서로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이 식민통치와 관련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군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여성단체들에 의해 정신대 문제가 제기될 당시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 65년 韓日합동위원회 과거배상문제 중점화되었지만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배상청구를 포함 어떤 후속조치가 가용한지 면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배상청구를 당면시키는 국민적정서의 쇄신修辭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내엔 배상청구를 단지 「돈」 때문 받아내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또한 배상청구가 국제법상 매우 어렵지만 아니라 韓日합동위원회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배상청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지 47년. 그동안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번도 방관자의 위치를 벗어나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오히려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보고서는 군대위안부의 전체 규모 등이 문제의 핵심적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나 많은 한국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몇명이 군대위안부로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최상부의

원 기록의 대부분을 폐기 해버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보고서 발표 등으로 정신대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고서 발간만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완결된 것은 물론 아니라 해도 「先진상 규명」을 이유로 배상청보 상충구문제를 유예해온 정부의 태도가 지속될 명분

공식文書化로 진상규명 압력 강제모집 등 확증 없어 아쉬움

따라서 이번 종합보고서는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해 본격적으로 「나를 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민간과 학계 차원에서만 머물러왔던

그러나 이번 정부보고서 는 군대위안부의 전체 규모 등이 문제의 핵심적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나 많은 한국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몇명이 군대위안부로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최상부의

어쨌든 이번 보고서 발표 등으로 정신대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고서 발간만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완결된 것은 물론 아니라 해도 「先진상 규명」을 이유로 배상청보 상충구문제를 유예해온 정부

의 태도가 지속될 명분

태평양전쟁이 끝난지 47년. 그동안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번도 방관자의 위치를 벗어나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오히려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보고서 는 군대위안부의 전체 규모 등이 문제의 핵심적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나 많은 한국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몇명이 군대위안부로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최상부의

어쨌든 이번 보고서 발표 등으로 정신대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고서 발간만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완결된 것은 물론 아니라 해도 「先진상 규명」을 이유로 배상청보 상충구문제를 유예해온 정부

의 태도가 지속될 명분

〈李基洪〉